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성수·정재용·이기광 '승승장구' 패널로 합류

배우 김성수와 그룹 DJ.DOC의 정재용, 그룹 비스트의 이기광이 10일부터 KBS 2TV '승승장구'에 새로운 패널로 합류한다.

'승승장구' 제작진은 3일 "개편을 맞아 MC 김승우를 포함한 4명의 새로운 MC 진용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간 '승승장구'에는 최화정, 김신영, 태연, 우영이 패널로 출연해 김승우와 호흡을 맞췄다.

김성수는 현재 MBC TV '볼수록 애교만점'과 KBS 2TV '천하무적 야구단'에 출연 중이며, 정재용은 QTV '바나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기광은 MBC TV '일요일 일요일밤에 - 뜨거운 형제들'에 출연 중이다.

연기 물오르다 도도女

'결혼해주세요' 오윤아

"'레이싱 걸'이라는 이지미를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해서 40대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000년 레이싱 걸로 출발해 2004년 연기자로 데뷔한 오윤아가 6년 만에 주목받는 '주조연'으로 부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사이 결혼과 출산, 갑상선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멈추기는커녕 달리는 기관차처럼 가속도가 붙어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그는 현재 KBS 2TV 주말극 '결혼해주세요'에서 허영기 다분하지만 속은 여린 '도도녀' 김연호를 연기하며 극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부의 신'의 장마리는 정말 신나게 연기했어요. 그 드라마 덕에 초등학생, 중학생 팬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그동안은 제가 누군지 몰랐을텐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어딜 가든 알아보는 거에요. 제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 어느새 초등학생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절 찍고 있어요. 제가 톱스타도 아닌데 놀이터가 난리가 나서 몇 번 홍역을 치른 후에는 놀이터에도 못 나가요.(웃음)"

'공부의 신'에 이어 출연한 '결혼해주세요'에서도 그는 콧대 높은

"레이싱걸 이미지 떼려 노력 무용가 꿈꿨는데 연기자로 마흔쯤 진짜 매력 보여드리죠"

아가씨를 맡아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제가 오버할 수 있는 캐릭터는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의 신' 때는 장마리를 연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고, 이번에 김연호도 얄미운 연기가 재미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김연호는 평범하면서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공주병이 있는 노처녀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는 보란 듯이 멋진 남자를 만나 신분상승을 꿈꾸지만 눈이 너무 높아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 간다. 그런데 웬걸, 요즘 어이없게도 아이 딸린 가난한 홀아비 한경훈(한상진 분)한테 자꾸 마음이 끌린다.

오윤아는 원래 무용가를 꿈꿨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용을 시작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면서 대학에서도 무용을 전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꿈을 꿔 보지 않았어요. 전 집안의 가장이었고 뭐를 해서든 돈을 벌어야했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연기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레이싱 걸 선발대회에 출전해보라는 제의를 받았고 거기서 1위를 한 거예요."

172㎝의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는 레이싱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CF계에도 진출했지만 3년 간 활동하면서도 연기는 생각하지 않았다.

"연기하라는 권유는 많았지만 겁이 나서 계속 도망다녔어요. 연기를 하려면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하는데 당시에는 돈을 벌기 바빠서 1년을 투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남동생이 '누나가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어딨냐'며 해 보라고 밀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고, 한 번 해보자는 생각에 연기학원에 등록해 혹독하게 수업받았습니다. 그때 하루 용돈 2천 원을 썼는데, 쇼윈도에 걸린 예쁜 옷들을 보면서 '난 언제 저런 옷들을 입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2007년 '외과의사 봉달희'를 찍으면서 결혼한 그는 허니문베이비를 얻어 그해 출산을 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제 모습은 기적같이 느껴져요. 누가 그러던데 연기자는 운명적인 직업이래요. 운명이 아니면 어찌해도 될 수 없다고. 제가 정말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운명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연합뉴스

연기에 눈뜨다 우쭐男

'이웃집 웬수' 최원영

2001년, 홍대 미대생(무대 디자인 전공) 최원영은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 영화에 푹 빠져있던 그는 20대 자신의 모습을 필름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참으로 용감무쌍하게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지겹도록 오디션에 떨어졌죠. 혼자서 무턱대고 알음알음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될 리가 있나요.(웃음) 수도 없이 떨어지면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 '색즉시공'의 오디션이었다.

"사실 그때는 이미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팔짱을 낀 채 '어디, 너희는 얼마나 하나 보자'는 심정으로 다른 후보들이 연

"연기 좋아 무작정 덤벼 지겹도록 오디션 떨어져 데뷔 8년만에 햇빛 드네요"

기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운 좋게 합격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그때 오디션으로 뽑은 역이 아니라 제가 원하던 역에 캐스팅된 겁니다. 주인공 임창정 형의 기숙사 친구 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살의 최원영은 2002년 '색즉시공'을 통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연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개똥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동선 같은 것도 다 현장에서 배웠어요. 오만함이 있었죠. 우쭐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대학원(홍대 광고홍보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당시 싸이더스HQ의 박성혜 이사를 동기로 만났어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한번 제대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5년 싸이더스HQ에 연습생으로 들어갔던 그는 2008년 말 KBS 1TV '너는 내 운명'의 의사와 2009년 MBC TV '선덕여왕'의 계백장군을 거쳐 현재 방송 중인 SBS TV 주말극 '이웃집 웬수'의 기훈 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훈이는 가치관이 분명하고 똑똑한 올바른 청년입니다. 부모 없이 큰 누나(김미숙 분) 밑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소중함이 절실하고요. 특히 큰 누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가끔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싶은 순간도 있지만 기훈이가 거친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누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데뷔 8년 만에 '햇빛'을 보기 시작한 그는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다. 잘 버틴 것 같고 아직도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그동안 연기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것 때문에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기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배우가 가진 색깔과 방식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미술 등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연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